

사회

# 비닐하우스·축사 폭삭... 곳곳 정전

## 50년만의 6월 태풍 '메아리' 광주·전남 생채기

### 항공기·여객선 끊겨 주민 불편

지난 1963년 '셀리'에 이어 48년만에 6월 한반도에 상륙한 제5호 태풍 '메아리(MEARL)'의 영향으로 광주·전남·북지역에서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풍이 전남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곳곳에 따라 초속 20~30m의 강풍이 불어 가로수가 넘어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이날 접수된 피해는 500여 건에 달했다.

목포와 순천, 곡성 등 6개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9개 동

의 주택이 반파됐다. 해남과 진도, 화순, 순천에서는 비닐하우스 18개동 1.07ha가 무너져 내렸으며, 이로 인해 재배종이던 재중용 양파와 하수오, 육묘 등이 수확도 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다. 또 해남군 옥천면과 화산면에서는 인삼재배시설 2개동 0.53ha가 태풍에 파손됐으며 순천시 월등면에서는 높이 5~7m, 길이 15m의 축사가 집중호우와 강력한 돌풍에 힘없이 무너졌다.

이밖에 여수시 울촌면에서는 축사 1동이 무너져 환우 6마리가 폐사했으며, 완도에서는 광어양식장 지붕이 파손되고 구 소우 공공시설인 야구경기장 웬스가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또 이날 오전 7시30분께 완도에서 김도(60)씨 집 지붕 일부가 날아가 전파대와 부딪치면서 인근 2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1시간 가량 중단됐다. 새벽 5시30분께에는 해남군 송호리에서도 도로변 전파대가 강한 바람에 넘어졌으며 진도에서는 고압 전기 연결 단자가 파손돼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긴급 보수되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목포, 순천, 광양, 해남, 영광에서는 가로수 391그루가 뿌리째 뽑히거나 절단됐으며, 간판 피해만도 폭포에서 10여 곳에 달했다.

광주에서 사는 북구 제4수원지에서 무당산장 방면 화암마을 앞 도로에서는 오토나루 등 나무 10여 그루가 쓰러져 한 때 교통이 통제되는 등 운전

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북구 중흥동 한 백화점 건너편 버스승강장이 바람에 넘어지기도 했다.

또 광산구 우산동 콜롬버스 시네마 간판 등 3군데에서 추락했으며, 남구 제석초교 인근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토사가 유출됐으나 응급복구했다. 태풍으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하면서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다. 광주공항에서 오전 7시 김포행 대한항공 등 모두 12편의 항공기가 전면 결항했다. 또 연안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돼 목포항을 비롯한 여수, 완도, 군산 등 39개 항로에 70여척의 여객선이 통제돼 섬 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양수원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고라니가 KTX보다 더 세다?

### 목포행 KTX 입구역서 충돌 50분 운행 중단

KTX가 고라니와 부딪혀 정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0시40분께 서울 용산발 목포행 KTX 417호 열차가 광주시 광산구 입구역 근처에서 고라니와 충돌해 50여 분간 운행을 멈췄다.

사고가 나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00여 명이 뒤따라 오던 무궁화호 열차로 바뀌 타 목포로 향

했고 사고 KTX 열차는 인근 차량 기지로 되돌아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구간이 시속 160km 구간인데, 고라니와 부딪혀 다른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운행을 멈춘 뒤 다른 열차로 환승했다"며 "통상적인 조치일 뿐 여타 고장으로 인한 운행 정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무서운 새벽길...

## 여고생 납치 미수·여중생 유인 성추행 잇따라

광주 도심에서 새벽시간대 여고생 납치미수 사건과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6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신발가게 앞에서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달아나려다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 남성은 A양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흉기로 상처를 입힌 뒤 자신의 차를 끌고 도망갔다. A양은 경찰에서 "후배와 헤어진 뒤 전화를 하며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흉기를 든 한 남성이 내 목덜미를 끌고 가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이 흰색 상의를 입고

은색 승용차를 타고 있었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새벽 0시30분께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 사는 고모(36)씨가 여중생 B(14)양에게 "최근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 위치를 알려 달라"고 접근한 뒤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B양은 자신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고씨의 집에 찾아온 친구 2명과 함께 고씨의 집을 도망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은 26일 고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감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양수원기자 yang@kwangju.co.kr

## 나원침 (8344) 김종두



## 순천 공중화장실서 40대 男 숨진채 발견

순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께 순천시 조곡동 모 사화단체 인근 공중화장실 안에서 이모(49)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청소 봉사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혀대가 풀린 하의를 입은 채 화장실 변기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화장실 잠금장치는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 경찰은 외상 흔적이 없고 이씨가 노숙 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총기자 ejkim@

## "타세요" 유혹에 화 나 승용차 발길질

○20대 여성이 혼자 길을 걸던 자신을 부르며 '유혹'하던 남성의 승용차에 발길질을 했다가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21)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이모(29)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다가 이날 처음 모 이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가와서 '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고 주장.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동료 노숙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중형

### 광주지법 징역 20년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죄에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번 기간에 범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경계성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모자라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생활하는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있던 최모(여·45)씨를 성폭행하려다 최씨가 최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임씨는 과거에도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태풍 '메아리'가 몰고 온 강풍으로 26일 새벽 광주시 동구 학동 한 건물 옥상의 철구조물이 무너져내리면서 인근 주택을 덮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프로축구 현역 골키퍼 승부조작 첫 자진 신고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다가 올해 전북 현대로 이적한 골키퍼 A씨가 전남 선수 시절인 지난해 승부조작에 관여했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자진 신고했다.

안기현 연맹 사무총장은 26일 "골키퍼 A씨가 지난 24일 밤 전북의 최강희 감독에게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털어냈다"며 "이철근 전북 단장과 협의해 25일 A씨를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 북태평양고기압에 막히고 장마전선 남하 못해

### ■ 광주·전남 태풍·비 피해 왜 적었나

제5호 태풍 '메아리'는 예상과 달리 광주·전남을 비교적 조용하게 스쳐갔다.

태풍은 26일 오전 9시께 목포 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 도달한 뒤 시속 97km의 빠른 속도로 북진했으며, 오후 3시께 백령도 서남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으로 북서진

했다.

기상청은 당초 태풍이 26일 밤 9시께 목포 서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이 북동진하며, 특히 광주·전남·북지역은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놓여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에 대규모 산사

태와 침수 등의 피해는 없었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힘이 약해져 광주·전남이 인접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서쪽으로 다소 밀린데다 빠른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동쪽으로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에 막혀 방향을 바꾸지

지 못했고 상층 기압골과 합류하면서 시속 97km로 빠르게 북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풍에 앞서 지난 주말 장마도 호남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강원과 충청, 영남지역은 200~300mm 이상 내려 7명이 사망·실종됐다. 다만 순천은 지형상의 영향으로 26일 오후3시까지 179.0mm가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에너지를 때려내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남하하지 못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양수원기자 yang@kwangju.co.kr

#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0고단 3089	대성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230	주식회사 해피로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374	유한회사 영광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382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45	삼광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50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58	주식회사 광성화물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64	주식회사 진평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72	주식회사 공단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79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678	주식회사 나래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733	합동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746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22	주식회사 코로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57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39	주식회사 코로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46	주식회사 흥양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53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61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71	주식회사 광성화물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79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48	합지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56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63	유한회사 새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71	유한회사 신동원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81	주식회사 명진봉운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89	주식회사 거보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99	유한회사 유백트렌스	도로법위반
2010고단 4288	서강기업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296	유한회사 삼남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21	주식회사 광성화물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29	주식회사 영진물류	도로법위반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0고단 4339	유한회사 일신화물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46	유한회사 옥산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51	유한회사 금성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61	주식회사 거보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69	유한회사 철마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79	유한회사 하남물류 (변경전 유한회사 월드로컬맥)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87	주식회사 대성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24	유한회사 무등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34	유한회사 신성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70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76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86	고려중기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94	유한회사 순화기업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00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23	유한회사 영명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29	주식회사 금성중기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10	무영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17	유한회사 하남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	주식회사 서라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6	유한회사 광진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5	주식회사 상복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42	원양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49	합지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58	주식회사 이인기업	도로법위반
2011고단 65	주식회사 남선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83	주식회사 철마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91	주식회사 명진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98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50	주식회사 거보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56	유한회사 철마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91	주식회사 플러스익스프레스	도로법위반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1고단 210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17	주식회사 대건운송	도로법위반
2011고단 222	천지환경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477	천일화물자동차 합지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496	주식회사 해피로물류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1년 4월 14일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0고단 2537	유한회사 장계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2700	유한회사 장계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2733	유한회사 무등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2879	유한회사 무등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669	한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670	한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673	주식회사 동양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732	천하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1년 4월 15일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0고단 3028	주식회사 가곡산업	도로법위반
2010고단 3153	유한회사 무등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232	대영화물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369	유한회사 다도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46	유한회사 광국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52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59	주식회사 진성로지텍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66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474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667	유한회사 새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674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682	무영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737	주식회사 양일운송	도로법위반
2010고단 3741	주식회사 거보물류	도로법위반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0고단 3749	주식회사 동운 (변경전상호 유성지로택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25	천지환경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31	유한회사 영광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48	유한회사 에스티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53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861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34	주식회사 로텍스 (변경전상호 주식회사 보성기업)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43	천지환경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56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65	유한회사 기아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74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3983	고려중기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42	유한회사 광주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51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상호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66	유한회사 새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75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84	주식회사 양일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193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202	합지회사 신성기업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274	천지환경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282	주식회사 에스티 (변경전상호 유한회사 서우화물)	도로법위반
2010고단 4291	주식회사 공단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00	주식회사 대성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24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33	주식회사 코리아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55	고려중기특수화물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64	유한회사 무인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73	유한회사 유백트렌스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82	유한회사 신성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391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20	우영유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28	주식회사 흥양운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37	유한회사 에스티 (변경전상호 유한회사 서우화물)	도로법위반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0고단 4465	주식회사 대성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71	주식회사 아인기업 (변경전상호 주식회사서라로지텍)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80	합지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489	삼광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21	주식회사 국일로지스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24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27	유한회사 대우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34	주식회사 영진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562	주식회사 삼한티에스	도로법위반
2010고단 4660	유한회사 코리아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667	주식회사 무인물류	도로법위반
2010고단 4673	한라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4	주식회사 광성화물 (변경전상호 주식회사 광성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5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13	주식회사	